

# 조선후기 義城 鵝州申氏家の 가계 이력과 향촌 재지 기반

- 의성 아주신씨 邑派・龜派의 고문서 검토를 중심으로 -

張 弼 基\*

머리말

I. 가계 구성과 사회적 기반

II. 경제적 기반

맺음말

## 요약

이 연구는 義城 鵝州申氏家の 고문서를 가지고 이 가문의 가계 이력과 향촌 재지 기반에 대하여 살펴본 것이다.

의성의 아주신씨가는 조선중기 이래 명망있는 가문으로 누백년 동안 의성읍과 봉양면 일대에 집성촌을 이루며 세거하여 왔다. 이 중에 특히 邑派라 불리는 內府令公派와 龜派라 불리는 鳳州公派는 의성읍과 봉양면 귀미리를 중심으로 세거하면서 많은 걸출한 인물과 전적을 남겼다. 영남 재지사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 가문의 고문서 자료들을 토대로 그 가계 이력과 사회·경제적 기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의성의 아주신씨 읍파는 16세기 초 申元祿으로부터 변창하기 시작하

---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투고일 2007.12.3.

심사일 2007.12.3.

심사완료일 2007.12.17.

였다. 원록은 周世鵬과 退溪, 南冥에게 배워서 학문적 기반을 쌓았다. 이를 바탕으로 長川書院을 설립하여 학문 진흥과 향약실천에 힘썼다. 이어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이후 이 가계의 후손들이 寒岡 鄭述와 旅軒 張顯光 등 영남의 巨儒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 향촌사회의 학문 진흥과 사회 구제 등 오직 성리학적 질서에 따른 전통유지에 힘쓰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의성을 중심으로 유명한 양반 사족가문으로서 사회적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

봉주공과는 의성 봉양면의 귀미리를 중심으로 대대로 살아 왔다.

귀미의 입향조 申之梯는 일찍이 惟一齋 金彦機와 鶴峯 金誠一의 문하에서 공부하였고, 1589년 증광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중앙의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이 과정에 중앙의 여러 영남 출신 관직자들과 교류하기도 하였다. 그의 아들 弘暭은 1639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중앙관직과 풍기군수, 울산부사 등 지방 수령을 역임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의 호구단자·준호구 등에 나타나는 노비들이 의성을 중심으로 하는 인근 지역과 멀리는 울산, 창원 등지에 이르기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이 가계의 학문적 연원 또한 김성일·유성룡·장현광 등에게 배워 한 고장을 중심으로 선현 배향과 지방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었다.

훈인은 두 가계 모두 의성과 안동권을 중심으로 한 인근 고을의 사족들과 인척을 맺어 그들의 사회·신분적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학문적 바탕에 더하여 경제적으로도 부족하지 않는 규모를 지니고 있었다. 이들 가계의 경제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제한적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일부 고문서에 나타난 내용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이 가계의 경제 규모뿐만 아니라 한 고장에서 차지하는 향촌 재지적 기반이 상당하

조선후기 義城 鵝州申氏家의 가계 이력과 향촌 재지 기반

였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의성 아주신씨가, 內府令公派(읍파), 鳳州公派(귀파), 고문서,  
지방교육, 金誠一, 張顯光, 사회 경제적 기반

## 머리말

기본적으로 고문서는 대부분이 유일본인 1차 사료이면서 동시에 기존의 연대기를 통해서도 좀처럼 파악할 수 없는 향촌의 일상적인 생활모습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사료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바탕을 근거로 하여 최근 고문서를 통한 조선시대 사회사 연구가 우리 역사의 전면에 부각되지 못한 지역사 내지 향촌사를 일깨우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영남 재지사족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밝히고자 하는 일련의 연구가 집적됨으로써 조선시대 영남 지역 향촌 사회사에 대한 인식의 깊이를 한층 더하고 있다.<sup>1)</sup> 여기에서 밝히고자 하는 義城의 鵝州申氏家는 이 같은 선행 연구에 힘입은 또 하나의 사례이다.

이들 아주신씨가의 토대인 의성은 인문 지리적으로는 내륙 중심부에 위치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문화적 특성 또한 인접한 안동권과 칠곡·선산·상주권의 완충적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 사족들의 통혼이나 학문적 교류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게 형

---

1) 그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李樹健, 1995,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一潮閣), 1980, 『光山金氏禮安派의 世系와 그 社會·經濟的 基盤-金緣家門의 古文書 分析-』(『歷史教育論集』 1, 경북대 사범대).

李樹健·李樹煥·鄭震英·金容晚, 1994, 『朝鮮後期 慶州地域 在地士族의 鄉村支配』(『民族文化論叢』 15,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鄭震英, 1989, 『16·17세기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와 그 성격』(『民族文化論叢』 10,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崔虎, 1992, 『朝鮮時代 嶺南士族의 鄉村支配 연구-16·17世紀를 중심으로-』(중앙대박사학위논문).

성되어 왔다.<sup>2)</sup>

의성의 아주신씨가는 조선중기 이래 명망있는 가문으로 발돋움하여 지금까지 누백년 동안 의성읍과 봉양면 일대에 집성촌을 이루며 세거하여 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邑派라 불리는 內府令公派와 龜派라 불리는 鳳州公派는 의성읍과 봉양면 귀미리를 중심으로 세거하면서 많은 걸출한 인물과 전적을 남겼다. 영남 재지사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 가문의 고문서 자료<sup>3)</sup>들을 토대로 그 가계이력과 향촌 재지 기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I. 가계 구성과 사회적 기반

아주신씨의 본관인 鵝州는 본래 고려말에 巨濟屬縣이었던 鵝州縣<sup>4)</sup>을 말한다. 義城에 오랫동안 세거해 온 鵝州申氏는 아주현의 權知戶長이었던 莢美의 후손들이다. 이들이 의성에 세거하게 된 것은 4세 允濡 때부터이다. 윤훈은 초명이 元濡로 고려말 判圖判書 兼 軍器寺事를 역임하였고, 일찍이 居昌에 세거하다가 尙州 望京山<sup>5)</sup> 아래 지금의 의성군 丹密面으로 이주하면서 아주신씨의 의성 입향조가 되었다. 그의 아들 祐는 고려말 전

2) 이 지역 사족의 학문적 교류를 보면 안동의 西厓·鶴峯, 인동의 旅軒, 상주의 息山·愚伏 등과 연계되어 있고, 통혼 또한 이러한 권역의 범주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3)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古文書集成 77-義城 鵝州申氏 梧峯家門·虎溪家門 篇』.

4) 현재는 巨濟市 鵝州洞으로 그 지명이 남아있다.

5) 망경산은 의성군 단밀면에 위치한 해발 499m의 산이다. 신윤유가 고려의 망함을 보고 애통해 하여 초하루 보름에 그 산에 올라가 개경을 바라보고 충절을 지켰다 하여 望京山이라고 하였다 한다. 뒤에 萬景山으로 바뀌어 현재까지 남아있다.

라도 按廉使를 역임하고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일체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효행이 지극하여 그가 살던 마을이 孝子리가 되었고, 그의 효행이 『삼강행실록』에 실렸다. 지금의 의성군 단밀면 注仙里에 그 효자비가 남아 있으며, 涑岩리의 涑水書院에 제향되었다. 우는 光富(內府令公派)와 光貴(鳳州公派)를 두었는데, 여기에서 邑派와 龜派로 나뉘지게 되어 내부령공파는 읍파로 봉주공파는 귀파로 불리게 되었다.

## 1. 內府令公派(邑派)의 가계와 사회적 기반

내부령공파는 祐의 장자 光富를 중시조로 하는 가계로서 의성 아주신 씨가에서는 읍파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실제 광부대부터 의성읍에 세거 하였던 것은 아니다. 윤유가 거창에서 의성군 단밀로 이거한 뒤로 우→광부→士廉대까지는 상주 망경산 아래 단밀에서 살았다. 의성읍으로 이거한 것은 사림의 아들 錫命 때이다. 윤유 이하 사림까지의 묘소는 모두 단밀에 있고, 단지 사림의 묘만 단밀에서 의성읍으로 移封하였다. 이는 석명이 의성에 정착하여 그의 부의 묘를 세거지인 의성읍으로 遷葬하였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읍파가 된 셈이다.<sup>6)</sup>

읍파가 변창하게 되는 것은 석명의 증손인 元祿(1516-1576)으로부터인 것 같다. 원록은 호를 梅堂 또는 陶岩이라 하고 효자로 이름났었다. 그의 형 元福과 더불어 8년 간이나 지성으로 환 중의 아버지를 간호하였고, 어머니를 위하여 宴親曲 8수를 지었다 한다.<sup>7)</sup> 1615년(광해군 7, 을묘)에 旌閭되었다. 원록은 周世鵬에게 師事하였고, 退溪와 南冥에게 나아가

6) 【부록 1】 鵝州申氏(內府令公派) 系譜圖 참조.

7) 申元祿, 『梅堂先生文集』 권3, 부록 행장 참조.

從遊하였다. 이러한 학문적 기반을 바탕으로 후진양성을 위해 長川書院을 설립하는 등 학문진흥과 향약실천에 힘썼다고 한다.

원록은 仁(1547-1615)과 佐(1550-1614)을 두었는데, 두 형제 모두 임진왜란 시 그들의 從姪인 弘道(1558-1611)와 함께 예안의 金垓<sup>8)</sup> 義陣에 참여하여 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심은 사헌부 감찰을 지냈고, 흘은 좌승지를 증직받았다.

흘은 適道·達道·悅道 등의 3남을 두었다. 적도(1574-1663)는 호가 虎溪로 학문과 효행이 뛰어났다고 한다. 寒岡 鄭述와 旅軒 張顯光의 문하로서 1606년에 진사가 되고, 1627년 정묘호란이 발발하자 의병을 일으켜 祥雲道 察訪에 제수되었다. 병자호란 때에는 척화를 주장하였고 군량을 마련하여 건원능 참봉에 제수되었으며, 사은하고 돌아와서는 옥산면 금학동 鶴巢臺에 採薇軒을 짓고 채소와 고사리를 뜯으며 학문에 전념하였다. 읍과의 고문서 자료에 그러한 소이를 담은 採薇軒稷案<sup>9)</sup>이 있다.

採薇에 대한 고사는 伯夷 叔齊에서 비롯되었으나<sup>10)</sup> 여기에서 말하는 채미헌은 백이·숙제의 그러한 뜻에 비겨서 이름한 것이 아니라, 丁卯胡亂 시 영남의병장을 역임하였던 虎溪 申適道가 병자호란 때에 다시 倡義

8) 장필기, 2000, 『鄉兵日記·梅園日記』·『果軒日記』 해제(『한국사료총서』 제43상·하, 국사편찬위원회) 참조.

金垓는 본관이 光山으로 예안현 사람이다. 호를 近始齋라 하며 退溪 李滉의 종질인 李宰의 女婿가 되어 宣祖 己丑年 文科에 급제, 藝文館 檢閱을 역임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창의하여 경상좌도 義陣을 편성, 義兵將에 추대되었다. 왜적을 추격하여 남하하다가 이듬해 癸巳年 6월 19일에 경주 戰陣에서 졸하였다. 그의 『항병일기』는 바로 이때에 쓰여진 것으로서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안동, 예안, 예천, 의성, 상주, 영주 봉화 등의 의병활동 관계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9) 앞의 책, 『고문서집성』 77, 266-307쪽 참조.

10) 채미 고사는 본래 殷나라 孤竹國의 왕자였던 백이·숙제가 아버지가 죽은 뒤 서로 후계자 되기를 사양하다가 끝내 두 사람 모두 나라를 떠났다. 그 무렵 周나라 武王이 은나라의 紂王을 멸하고 주왕조를 세우자, 두 사람은 무왕의 행위가 仁義를 반하는 것이라 하여 주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고, 首陽山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먹다가 굶어죽었다. 그 뒤부터 清節之士를 주로 채미 고사에 비겨 말하였다.

한 뒤 義城의 학소대에 茅軒을 짓고 채소를 키우고 고사리를 뜯어 자족하며 근경을 맞이한다는 뜻에서 비롯된 이름이었다.<sup>11)</sup>

그 뒤 고종 병자년(1876)에 향리의 여러 사람들이 뜻을 모아 丹邱에 移建하였는데, 채미현 계안은 바로 이러한 당초의 뜻을 이어받고자 만든 계안으로서, 1917년(丁巳) 11월에 발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채미현 계안의 좌목에 기록된 인원은 총 467인으로 의성의 아주신씨를 비롯하여 인근 향리의 여러 성씨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 계가 발족한 일제시기에는 각종 계가 성행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殖利·殖産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부조 계였다. 이 같은 계는 어떤 면에서 일본제국주의가 한국을 상품 시장화 하여 식민지적 상업자본주의에 이용하고자 한 면이 강하였다. 그런데 비하여 이 채미현 계안은 절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계안의 題詠에 나타나는 뜻으로 볼 때 상호부조 보다는 선현의 貞忠과 忠節을 기리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끝장에 忍齋宗家 藏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인제는 바로 채미현을 세운 호계의 제3자 塚이다.

달도(1576-1631)는 호를 晩悟라 하였는데, 月川 趙穆과 여현의 문인이다. 1610년에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나, 정계가 혼란하여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1623년(인조 1) 5월에 명나라 熹宗의 등극을 기념하는 庭試文科에 장원급제한 뒤, 1627년 사간원 正言을 이어 持平이 되었다. 이해 6월 병조판서 李貴의 전횡을 배척하는 소를 올려 그의 미움을 샀으며 副司直으로 전보되었다. 1629년 사헌부 장령이 되었을 때, 內需司가 진상을 과다하게 강요하는 폐단을 일소하도록 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보다 앞서 1627년 정묘호란 때 尹煌과 함께 적극적으로 척화론을 주장하다가 파직되었다. 후일 도승지에 추증되었다.

---

11) 『鵝州申氏世獻』, 採薇軒移建記 참조.



열도(1589-1659년)는 호가 懶齋로 또한 여현의 문인이다. 1624년(인조 2)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고, 1606년(선조 39)에 진사가 되었다. 1627년 정묘호란 때에는 인조를 호종하였다. 이듬해 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 뒤 예조정랑·사간원 정언을 거쳐 1638년 蔚珍縣監을 지내고, 1647년 사헌부 장령이 되어 민생에 대하여 상소하였고 뒤에 綾州牧使를 지냈다. 저서로 『仙笑志』, 『聞韶志』를 펴냈는데, 『문소지』는 『의성지』의 전신이기도 하다.

이들 3형제 모두 旅軒 張顯光의 문인으로 학문을 닦았으며, 나아가 종형제인 泳道(允의 자)와 적도의 자 塚 등도 모두 여현에 及門한 학문적 연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학문적 바탕에 더하여 경제적으로도 부족하지 않는 규모를 지니고 있었던 듯하다. 이들 가계의 경제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고문서 중의 호적자료나 分財記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다. 특히 적도가 그의 4남 5녀에게 분재하는 許與文記에서 볼 때 이 가계의 경제규모뿐만 아니라, 당시 17세기 중반의 재산상속제의 양상을 함께 추적해 볼 수가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적도의 3남인 塚(1610-1672)는 의성읍 八智마을<sup>12)</sup>의 입향조이다. 체의 호는 忍齋로 1646년(인조 24)에 성균관 진사가 되었다. 성균관 수학시 문행이 뛰어나 영남의 三某란 칭송을 들었으며, 국왕으로부터 聖學十圖銘 제작을 명받기도 하였다 한다. 주위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벼슬길에는 일절 나아가지 않고 오직 성리학 연구에만 전념하였다. 『忍齋文集』이 있으며, 丹邱書院에 배향되었다.

---

12) 八智마을은 처음에 '바지'라 불렀는데, 지금도 上八을 옷 바지, 下八을 아랫 바지라 부르고 있다. 현재는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여덟 산봉우리에 성터가 있었다고 하여 八城里로 일컬어지고 있다(의성군, 1998, 『義城郡誌』 참조).

채는 禹錫과 文錫을 두었다. 우석은 德潤·德海·德滄를, 문석은 德益·德浩·德洵을 두었다. 나아가 덕운은 義模, 덕해는 器模, 덕호는 禮模, 덕순은 正模를 두었다. 특히 덕순의 자 정모(1691-1742)는 호가 二恥齋인데, 李麟佐 난이 일어나자 거창현감으로 재임하면서 그의 노모를 안전 한 곳으로 먼저 피난시켰다고 하여 화근이 되었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유배되어 결국 어머니도 모시지 못하였고, 나라에 충성도 하지 못하여 충과 효 두 가지 모두를 못한 부끄러움에 이치재라 자호하고, 오직 학문에만 힘썼다 한다. 1750년(영조 26)에 사면되었다.

아주신씨 읍파의 고문서 중 호적자료는 16세손인 德潤의 준호구로부터 보이기 시작하여 21세손인 寅協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자료들을 통하여 이 가계의 소유노비 규모 등을 살필 수 있어서 또한 분재기 등과 더불어 경제력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덕운은 후사가 없어 그의 아우 德海의 장남인 義模를 立後하였다. 덕해는 의모·器模·禮模 등 3남을 두었는데, 장남은 큰댁에 출계시켰고, 3남은 종제인 덕호에게 출계시켰다. 이러한 出系 과정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작은댁에서 큰댁으로 출계시킬 때는 장남을, 큰댁에서 작은댁으로 출계시킬 때는 차남 이하를 보내는데 이는 가계의 位次를 고려한 까닭에서이다.

義模는 宗烈과 東烈을 두었는데, 또한 종렬이 후사가 없자 동렬의 장남인 萬教를 입후시켰다. 아울러 동렬의 3남인 高敎에게도 후사가 없어서 2남인 泳敎의 3자 晁璟으로 입후하였다. 이와 같이 형제와 종형제 사이에서 출계 관계가 이루어지는 모습은 이 당시의 전형적인 출계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만교는 晁穆·晁九·晁一을 두었고, 면목은 초명이 翊朝였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國朝→匡朝→면목 등 여러 차례 개명하였다.<sup>13)</sup> 면목의 자 인협도 駟協에서 인협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인협의 자

는 相夏이며 이 가계의 所志類가 이때부터 나타나고 있다. 내용은 주로 儉葬문제 등 山訟을 다룬 것이며, 祭位畚의 정세문제를 다룬 것도 있다.

읍과의 통혼관계에서 보면 대개 의성을 중심으로 한 인근 고을의 사족들과 인척을 많이 맺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義城金氏의 鶴峰 집안이나 安東權氏, 英陽南氏, 咸安趙氏, 咸陽朴氏, 永川李氏 등이 많았다.

이상에서 의성 아주신씨 읍과의 가계구성을 통하여 보았듯 이들 가계에서 중앙관직으로 진출한 이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는 영남 남인들이 肅宗 연간 중앙관계로부터 배제 당한 이후 더 이상 진출할 수 없었던 역사적 연유에서도 그렇겠지만, 특히 이 가계는 학문적으로 영남의 巨儒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음으로써 향촌사회의 학문진흥과 사회구난 등 오직 성리학적 질서에 따른 전통유지에 힘쓰고자 하였다. 따라서 의성을 중심으로 명망 있는 사족가문으로서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지닐 수 있었다.

## 2. 鳳州公派(龜派)의 가계와 사회적 기반

봉주공파는 祐의 차자 光貴를 중시조로 하는 가계이다. 봉주공파라 부르게 된 것은 광귀가 황해도 知鳳州事<sup>14)</sup>를 역임하였기 때문이다. 봉주공파는 내부령공파인 邑派에 대하여 龜派라 불리는데, 이는 이 가계가 義城 鳳陽面の 龜尾里를 중심으로 대대로 세거하여 왔기 때문이다. 允濡→ 祐→光貴→希信→乾까지의 상주 관할의 丹密<sup>15)</sup>에 세거하였다.<sup>16)</sup>

9세손 始生 때에 安東郡 豊北面 鼎寺洞으로 이주하였다가 10세손 介

13) 앞의 책, 『고문서집성』 77, 42-45쪽, 申晁穆의 준호구 참조.

14) 鳳州는 황해도 鳳山이다.

15) 현재의 義城郡 丹密面이다.

16) 【부록 2】 鵝州申氏(鳳州公派) 系譜圖 참조.

甫 때 비로소 義城郡 鳳陽面 上里洞으로 옮겼고, 14세손인 之梯 때에 현재의 봉양면 귀미에 세거하게 되었다.

귀미는 면소재지인 봉양면 桃李院에서 5리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로서, 앞에는 낙동강의 지류인 남대천이 흐르고, 병풍처럼 둘러싸인 산기슭 양지쪽에 일단의 와가를 이루고 있는 아주신씨 집성촌이다. 신지체가 入郷할 당시의 지명은 의성군 金磊面 龜莊<sup>17)</sup>이었으나 마을 뒷산이 거북의 등과 꼬리모양을 한 채 남대천으로 흘러내리는 형상을 하여 귀미로 바뀌었다 한다.<sup>18)</sup> 현재 귀미동에는 樂善堂과 申之梯神道碑, 錦山書院, 竹厓亭, 鑑厓亭, 三知堂, 蒼巖亭 등 아주신씨의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귀미의 입향조 之梯(1562-1624)는 자가 順夫, 호가 梧峰·梧齋로 증조는 증 창례원판결사 翰이며, 할아버지는 증 공조참판 應奎이고, 아버지는 증 좌승지 夢得이며, 어머니는 月城朴氏 敏樹의 딸이고, 부인은 咸安趙氏 址의 딸이다.

일찍이 惟一齋 金彦機와 鶴峰 金誠一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1589년(선조 22) 증광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였다. 1601년에 正言과 예조좌랑을, 이듬해에 持平·成均館 典籍 등을 거쳐 1604년 世子侍講院 文學·成均館 直講을 역임하였다.<sup>19)</sup> 이러한 과정에서 중앙의 여러 동향 관직자들과 교유하기도 하였다.<sup>20)</sup>

17) 龜莊을 일명 龜湖라고도 하였다.

18) 앞의 책, 『義城郡誌』 참조. 지금까지도 龜尾里를 비롯한 龜山里, 花田里 일대 마을은 아주신씨의 집성촌으로 申之梯의 여러 후손들이 살고 있다.

19) 앞의 책, 『고문서집성』 77, 梧峯先生年譜草記, 561-596쪽 참조.

20) 이에 대한 기록으로 ‘同道會題名錄’(앞의 『고문서집성』 77, 596-599쪽)이 있다. 內題는 ‘題嶺南同道會題名卷’으로 서울에서 벼슬하는 영남인들이 친목을 다지고자 만든 제명록이다. 1601년(선조 34, 辛丑) 추7월에 掌樂院 새 청사에 26인이 모여 이 제명록을 만든다고 하였다. 이때 좌장이 되는 西川 鄭珉壽는 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나이순으로 제명하여 그를 맨 앞에 기록하니 相愛之情을 다진다고 하였다. 그 이듬해인 壬寅年 孟秋에 五峯 李好閔이 쓴다고 하였다. 정곤수를 포함하여 제명록에 등재된 27인은 다음과 같다. 보국승록대부 정곤수, 성균관사 李好

1613년(광해군 5)에 창원부사로 나가 明火賊 鄭大立 등을 討捕하고 민심을 안정시킨 공로로 조정의 논상을 거쳐<sup>21)</sup> 5월 초6일에 통정대부를 더하는 교지가 내려졌었다.<sup>22)</sup> 인조반정 초에 동부승지에 除受되었으나 부임하지 못하고 졸하였다.

효성과 우애가 돈독하고 經史에 통달하여 柳成龍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예안현감으로 재직 중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金垓, 郭再祐 등과 함께 의병을 모집하여 적을 토벌하였다. 이 공으로 宣武原從功臣 1등에 錄勳되었다. 그 功臣錄券이 전하고 있다.

1663년 藏待里<sup>23)</sup>에 후진양성을 위한 강당을 개설하였는데, 사후 그 자리에 그를 경모하기 위한 景顯祠가 창건되었고, 이어 藏待書院으로 개칭되었다. 서원명은 당시 의성현령이었던 旅軒 張顯光이 ‘藏器於身 待時而動’이란 현판을 써서 내걸게 됨으로써 비롯되었다 한다. 興宣大院君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손되었다가 근래에 중건되었다. 金光粹·李民成·申元祿과 함께 그 서원에 배향되었다.

閱, 호조참판 晉陽君 姜紳, 증좌위 부호군 姜緹, 군자감 정 尹擘, 훈원원 첨정 朴應立, 예조정랑 지제교 申之悌, 익위사 익위 姜紘, 울산도호부 판관 金澤龍, 사헌부 감찰 權景虎, 성현도 찰방 柳仲龍, 증림도 찰방 全雨, 전 황간현감 吳克成, 전 청산현감 李弘發, 창녕현감 朴光先, 전 장기현감 權世仁, 사제감 주부 權淳, 용양위 부사과 金愷, 선공감 직장 盧道亨, 승문원 저작 李民成, 교서관 저작 權濟, 선공감 봉사 申景翼, 예문관 검열 겸 춘추관 기사관 李民寔, 광흥창 부봉사 趙靖, 제용감 참봉 曹友仁, 승문원 부정자 南復圭 등이다. 지역별로는 尙州가 8인으로 가장 많고, 咸昌 4인, 軍威 3인, 寧海·丹城 각 2인, 義城·星州·禮安·巨昌·草溪·金山·高靈·安東이 각 1인이었다.

- 21) 『光海君日記』 권115, 광해군 9년 5월 정묘. “刑曹啓曰, 洪州牧使 尹義立, 明火作賊 僧景栗, 信川郡守 任碩齡, 明火作賊 僧宏侃, 昌原府使 申之悌, 明火作賊 鄭大立, 盡心捕捉, 極爲可嘉, 論賞事上裁. 啓, 并加資.”
- 22) 萬曆 45년(1617) 5월 초6일자에 발급된 申之悌의 通政大夫 加資 교지에, “明火作賊 鄭大立等盡心跟捕極爲可嘉加資事承傳”이라고 하였고(앞의 책, 『고문서집성』 77, 349쪽), 엿새 뒤인 5월 12일자 교서에 그 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앞의 책, 『고문서집성』 77, 325쪽).
- 23) 장대리는 귀미리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의 아들 弘望(1600-1673)은 자가 望久, 호가 孤松으로 1627년(인조 5) 진사시에 합격하고 康陵 참봉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1639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주서·정언·전주판관·지평·풍기군수·울산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1652년(효종 3) 사헌부 지평으로 있을 때 도승지 李時樸가 자못 悖慢한 것을 지평 李濼發이 上奏하다가 탄핵되었는데, 이 때 이시매가 자기의 옳음을 선현을 끌어들이어 증명하려 하였다. 이에 직접 그 疏를 보고, 실로 모욕적이라 여겨 이를 단독으로 왕에게 진달하였다.<sup>24)</sup> 이것이 빌미가 되어 당론을 타파하고자 하는 마당에 護黨한다 하여 탄핵을 받고 碧潼으로 유배되었다가 두 달 뒤 풀려났다.

또한 1659년 풍기군수로 나갈 때 扈宰가 연달아 관청에서 죽자, “내가 그 자리에 나가지 않고서는 요망스러운 말을 없앨 수 없다.” 하고 부임한 뒤, 학교를 일으키고 교육에 힘썼다. 장 여현의 문인으로 학문에 뛰어났으며, 저서로는 《孤松集》이 있다.

龜派의 고문서 자료 중 호적자료인 호구단자·준호구 24점이 15세손인 홍망에서부터 24세손인 相基에 이르기까지 9대 동안의 것이 남아 있다. 이 가계의 경제사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다른 고문서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호적자료를 통해서나마 부분적으로 이 가계의 경제규모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호구단자·준호구에 따르면 之悌·弘望대에 중앙과 지방관을 역임해서인지 의성을 중심으로 하는 인근지역 일대와 멀리는 울산, 창원 등지에 이르기까지 전토 또는 노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홍망은 漢老·漢傑·漢伯 등을 두었는데, 한노(1623-1676)는 학문에 만 전념하여 일찍부터 과거에는 뜻이 없었다. 이에 그의 姨從兄인 李觀徵

---

24) 『孝宗實錄』 권9, 효종 3년 9월 병술.

이 여러 차례 관직에 나아가도록 권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이관징(1618-1695)은 숙종 때 吏曹判書와 行判中樞府事를 지낸 인물로,<sup>25)</sup> 그의 어머니가 李民寯의 딸로 한노에게는 姨母가 되었다. 이민환(1573-1649)은 본관이 永川으로 관찰사 光俊의 아들이다. 張顯光의 문인으로서, 1600년(선조 33)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영천군수 등을 역임하였고, 1618년(광해군 10)에 姜弘立의 막하로 출전하였다가 청나라 군의 포로가 되었으나 항복하지 않았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嶺南號召使 장현광의 종사관이 되어 출전하였고, 형조참판, 경주부윤을 역임한 인물이다.<sup>26)</sup>

한걸은 할아버지가 임진왜란 시 세운 공훈에 의하여 20세에 宣務郎에 陞資되어 義盈庫 主簿를 역임하였다.

한노는 叔範·叔簾·叔筵·叔篋를 두었다. 숙범은 鶴峰의 玄孫婿로 金是樞의 孫婿이다. 이 가계 또한 邑派와 마찬가지로 의성김씨 학봉 집안과 통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숙범은 賁龜·復龜·震龜·泰龜 등 4남을 두었다. 분구는 초명이 진룡이었으나 개명하였고, 복구는 호가 雙碧堂으로, 손수 마당에 두 그루 오동나무를 심어서 당호를 그렇게 지었다는 아우 진구의 「雙碧堂記」가 있다. 진구는 호가 竹厓로 영조 戊申年에 別試를 보기위해 京城으로 향하다가 중도에 李麟佐亂의 소식을 듣고 稷山縣에 이르러 縣宰에게 방략을 알려줘 守城報營케 하고 돌아와서는 一門親族과 鄉人을 거느리고 倡義하였다. 병진년(영조 12, 1736)에 문묘에 宋時烈과 宋浚吉을 從享하고자 하자 이를 배척하는 嶺南儒疏의 疏首로 추대되기도 하였다.

분구는 道三·道九·道萬을 두었으며, 도삼은 重仁·近仁·好仁을

25) 金春澤 등이 숙종의 폐비 민씨의 복위운동을 일으킴으로써 노론과 소론 일파를 제거하려던 남인들이 오히려 참화를 당한 1694년의 甲戌獄事로 앞서 1689년에 일어났던 己巳換局 때의 狀啓를 발의한 인물로 지목되어 削黜되었다.

26) 紫巖 李民寯에 대해서는 禹仁洙, 2007, 「紫巖 李民寯의 시대와 그의 현실대응」(동방한문화회 발표문(2007. 11. 17일자 발표) 참조.

두었으나 호인은 당숙 道濟(震龜의 아들)에게 立後되었다. 입후란 자식이 없는 사람이 同宗의 가까운 친족으로서 뒤를 잇게 하는 것으로, 두 집안이 합의문서를 만들어 官에 고하고, 禮曹의 확인절차인 立案을 받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공식적인 효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입후 과정에도 罷養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항도 있었다. 이를테면 同宗의 맏아들로서 남의 뒤를 잇게 하는 경우나 한쪽 부모가 모두 죽은 경우에는 입후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든가, 남의 양자가 된 자의 생가 부모가 無後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과양하여 생가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등이다.<sup>27)</sup>

봉주공과의 입후 標文<sup>28)</sup>을 보면 22세 종손인 祖應이 1804년(순조 4) 11월 30일에 후사가 없이 죽자, 이에 이듬해 정월 8일에 丹城에 있는 宗族 祖祐의 셋째 아들인 희목을 종손으로 입후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조옹이 28세로 요절하자 문중에서 부라부라 대책을 세워 조옹의 종숙인 鼎年을 단성의 조호에게 보내어 조호의 제3자인 熙穆<sup>29)</sup>을 종손으로 삼아 宗嗣를 잇게 하였다. 이에 조호의 형 祖榮과 함께 데려와서 비로소 入哭하고 發喪하여 承重子가 되었다.

종손 희목의 생부인 조호와 양모 晉陽姜氏를 비롯한 신씨 일가들이 연명하고 수결하였다. 입후는 親盡의 범위 내에서 주로 이루어지지만 조선후기로 갈수록 점차 그 범위가 광범위 하여져 10-20촌 사이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 가계에서는 11촌 사이에서 出系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출계도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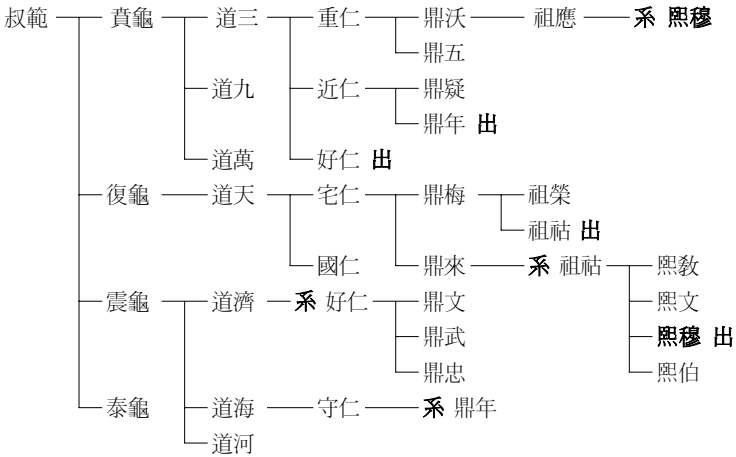
27) 『大典會通』 禮典, 立後條 참조.

28) 앞의 책, 『고문서집성』 77, 388쪽 참조.

29) 熙穆은 당시 10세로 初名이 宗運이었으나 희목으로 改名하였다. 그 뒤의 준호구에 의하면 희목에서 昌虎로, 다시 1822년(순조 22)에는 창호에서 休龍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立後出系圖



道萬은 體仁을 두었는데 호가 晦屏이다. 중형 重仁이 29세에 요절하자 그를 회상하는 불망기를 남겼는데, 고문서 중에 『黃蛇日錄』으로 전하고 있으며, 체인이 쓴 중인의 墓表에 그 내용의 개략이 들어 있다. 특히 체인은 大山 李象靖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문장이 뛰어나고 퇴계학에 정통하였다 한다. 1776년에 龜尾里 錦山에 錦淵精舍를 세워 후학을 양성하였다. 금연정사는 현재 錦山書院으로 복원되었다.

漢老 이후 叔範→賁龜→道三→重仁→鼎沃→祖應→熙穆→相基로 이어지는 이들 가계는 더 이상의 중앙관직자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토대로 향촌사회 내에서 명망있는 가문으로 자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것은 1650년(효종 1)의 ‘貞夫人趙氏不忘記’<sup>30)</sup>나 1745년의

30) 이 불망기는 申之梯의 처 정부인 威安趙氏(부는 중형판 址)의 喪을 당하여 子 弘望이 기록한 것이다. 표지에는 『天啓 庚寅年 終天錄 貞夫人趙氏不忘記』로 되어 있다. 조씨는 1563년(명종 18, 계해)에 태어나서 1650년(효종 1, 경인)에 졸하여 88세

‘考位不忘記(佳道谷耐葬位)’<sup>31)</sup>, ‘壬戌年終天錄’<sup>32)</sup> 등 조위록을 통한 당시 향촌 사류의 친교관계 등에서도 알 수 있다. 당시 조문한 이들의 지역분포를 보면 의성 인근 마을을 비롯하여 상주·영천·양동·제천·인동·성주·선산 등 다양하다. 특히 이러한 지역에서 오는 조문객들은 단체로 특정 성씨 집단을 이루고 있기도 하였다.

앞에서 보았듯이 아주신씨 일가의 학통은 학봉·서애·여헌 계통에 연유하고 있다. 이러한 맥은 ‘氷溪書院田畝案’에서도 잘 보여 지고 있다.

빙계서원은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에 있었던 서원으로 1556년(명종 11)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金安國·李彦迪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창건하였다. 1576년(선조 9)에 長川書院이라고 사액되었다가, 1600년(선조 33)에 移建하면서 빙계서원으로 개칭하였다. 1689년(숙종

---

를 수하였다. 당시로서는 대단한 장수를 누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650년은 天啓 연간이 아니라 명나라 永曆 4년이거나 청나라 順治 7년이다. 아마도 이러한 연호를 쓰지 않기 위하여 명의 熹宗 연호인 천계를 쓴 것 같다. 1책 14장으로 흥망이 그의 어머니 조씨의 喪事 과정을 잊지 않기 위하여 기록으로 남긴 것 같다. 내용은 조씨가 무자년 全州 任所에서 寒熱之症이 있어 점점 심하여 지다가 경인년 정월 초2일에 증세가 심하여져 초8일에 상을 당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 뒤에 襲用衣服, 小殮衣衾, 大殮衣衾, 治棺, 葬山, 山卽護喪, 賻物, 輓章 등의 순서로 일련의 상례 과정을 기록하고 賻儀錄과 만장 내용을 정리하여 함께 기록하였다(앞의 책, 『고문서집성』 77, 487-501쪽 참조).

- 31) 申賁龜(1677-1745)의 상사를 당하여 그의 자 道三·道九·道萬 중 어느 누가 기록한 것으로, 내표지에는 ‘乙丑年慰狀錄’이라 하여 조문객들의 명단을 정리하였다. 분귀는 을축년 2월 19일 69세로 졸하였다. 조문한 이들의 지역분포를 보면 의성 인근 마을을 비롯하여 상주·영천·경주 양동·제천·인동·성주·선산 등 다양하다. 특히 이러한 지역에서 오는 조문객들은 단체로 특정 성씨 집단을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하여 당시 향촌 사류의 친교관계 등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1책 16장이자(앞의 책, 『고문서집성』 77, 510-527쪽 참조).
- 32) 신분귀의 상사 시에 그 내력과정과 준비절차 및 상례 과정을 기록한 불망기이다. 先君이 임술년 5월 24일에 갑자기 寒氣와 두통, 요통, 사지통이 있는 뒤 6월 초4일에 졸하였다는 내용과 그 뒤에 襲具, 小殮具, 大殮具, 棺板, 改殯, 漆, 葬山, 穴深, 石灰 등의 준비 과정을 기록하고, 이어 분귀의 3재 사위인 柳載春의 제문과 장사시의 부조 내용을 기록하였다. 1책 7장이자(앞의 책, 『고문서집성』 77, 502-509쪽 참조).

15) 金誠一·柳成龍·張顯光을 추가로 배양하여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였으나, 興宣大院君의 서원철폐령에 의해서 1868년(고종 5)에 훼철되었다.<sup>33)</sup>

通婚에 있어서도 이들 가계는 의성과 안동을 중심으로 의성김씨, 풍산류씨, 안동김씨, 안동권씨, 영양남씨, 풍양조씨, 한양조씨, 광산김씨 등 유수 가문과의 끊임없는 혼인관계를 통하여 그들의 사회·신분적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였다.

## II. 경제적 기반

### 1. 內府令公派의 경제 기반

의성 아주신씨가 가의 경제 기반에 대해서는 몇몇 주요 경제 관련 고문서에 나타난 사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것은 戶籍類, 所志, 分財記, 田畝案, 契案, 標文, 完議 등이 있다.

이 가계의 호적은 모두 準戶口로 德潤에서부터 寅協까지 5대에 걸쳐 이루어진 40점이 남아 있다. 1696년에 발급된 덕윤의 준호구에는 총 37구의 노비가 기재되어 있다. 이들은 順天을 비롯하여 興陽·海南·安東·尙州·慶州·淸道 등 전남과 경상도에 각각 분포되어 있는데, 주로 홍양과 해남에 많았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도망노비로 되어 있으며, 救活奴婢도 들어있다. 그러다가 덕윤이 61세 되던 해의 준호구에는 매득노비 등이 더하여져 총 59구로 늘어나 있다. 義模와 宗烈을 거쳐 宅起에게 전래되었는데, 택기는 1789년 준호구에서는 萬教로 개명한 것으로 나타나

33) 1994, 『列邑院宇事蹟』(민창문화사), 경상북도, 1983, 『慶尙北道史』 참조.

있다. 이 때의 노비수는 48구였다.

만고를 이어 그의 자 冕穆은 초명이 翊朝였으나 여러 차례에 걸쳐 개명을 하여 國朝(22세)→匡朝(25세)→면목(31세)이 되었다. 그러나 익조의 준호구에 기재된 노비수는 불과 4구뿐이었다. 이는 기존의 도망노비들을 기재하지 않은 결과라고 짐작된다. 이미 이 시기가 되면 대부분의 집에서 도망노비들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노비수의 급감이 초래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호구단자나 준호구 등에 아예 기재하지 않게 되었다.

희복은 22세 되던 해 奴 正辰과 정진의 1소생 婢 元心(願心), 원심의 2소생 孫心 등 3구를 朴萬金에게 매수하였다.<sup>34)</sup> 그러나 정진과 손심은 도망하여 尙州 內驛에 거주하게 되었고, 결국 남은 노비는 仰役婢인 원심뿐이었다. 면목이 도망 5년에 그의 아들 駙協에게 전래되었으나 일협이 요절하자 비 원심은 일협의 중부인 冕九에게 전래되었다. 일협은 개명하기 전의 寅協이다. 이 같은 자료에서 이들의 가계규모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더불어 適道가 생전에 그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해 준 許與文記가 있는데,<sup>35)</sup> 여기에서 적도는 土集·均·塚·坵의 4남<sup>36)</sup>과 擘女 둘을 포함하여 5녀에게 재산을 허여하였다.

이 분재기의 앞부분은 산일되어 장남인 집의 분재 묶은 알 수 없고, 차남인 균부터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분재시기가 정확히 언제인가는 알 수 없다. 더구나 재주인 적도가 90세까지 장수하여 1663년(현종 4)에 졸하였기 때문에 그 시기를 짐작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이 문기의 證筆

34) 尙州牧 立案이 첨부되어 있다.

35) 앞의 책, 『고문서집성』 77, 15-17쪽.

36) 장남인 집은 從仕郎, 차남인 균은 宣敎郎, 3남인 채는 진사, 4남인 점은 선교랑이었다.

인 적도의 아우 悅道가 1659년(효종 10)에 졸하였고, 같은 증인인 조카 圭가 1656년(효종 7)에 졸한 것을 족보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이들 모두가 생전이었던 1656년 이전에 분재기 작성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장남인 집의 생전인지 아닌지는 이 문서를 통해서 알 수 없다. 참고로 집은 1637년(인조 15)에 무후하였다. 아무튼 17세기 중엽이라는 시점에 이루어진 이 허여문기는 균분상속제의 분재 형식을 그대로 취하고 있다.

대개 奉祀條는 16세기 중반 이후 장자 중심으로 집중되어 갔으며, 차등상속제 또한 17세기 후반 이후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양상을 볼 때 이 문기에서 봉사조가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차녀에게 분재 몫을 주면서 “無後故只出祀位”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아직도 輪回奉祀한 것이 아닌가 짐작할 뿐이다. 그러면 서 딸들에게는 일정의 법전적 비율이 적용되었던 것 같다.<sup>37)</sup>

각 자녀들에게 분재된 재산 내용을 통계수치화 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이 통계 수치에서 보듯이 허여문기의 앞부분 파손으로 전체 전답과 노비수를 정확히 산정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시기 영남지역 주요가문의 몇몇 분재기에 나타나는 전답이나 노비수 등과 비교해 볼 때 이 정도의 수치는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다.<sup>38)</sup> 그러나 17세기 당시 향촌 재지 사

37) 『經國大典』 刑典 私賤條에 따르면 분재시 良妾子女에게는 嫡衆子女의 1/7을, 賤妾子女에게는 1/10을 상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8) 17세기 영해 재령이씨의 분재기 중 이합의 처 이씨의 분재기(1634년)를 보면, 4남 2녀에게 나누어 준 전답은 494두락, 노비 142구이고(문숙자, 2004,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경인문화사, 203쪽), 이신일 5남매 화회 분집(1664년) 량은 전답이 284.5 두락, 노비수는 88구(문숙자, 앞의 책, 206쪽)이다. 또 안동 고성이씨의 이지 남매의 화회분집(1618년) 량은 전답이 1,645두락, 노비 414구(문숙자, 앞의 책, 230쪽), 이후영 형제 화회분집(1688년) 량은 토지가 1,599.8卜, 노비 281구(문숙자, 앞의 책, 239쪽) 등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각 가문의 경제 규모나 특성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평균적 산술을 구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상호 비교 대상은 될 수 있을 것 같다.

족의 일반적 재산 분집량에 비긴다면 상당한 재산 규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급자	분재 내용			비고
	전	답	노비	
차남 均	289부 9속 22.5두락지	67부 7속 38.5두락지	10구	
삼남 琛	340부 1속 37.5두락지	64부 5속 19.5두락지	10구	
말남 帖	313부 2속 21두락지	56부 3속 20.5두락지	11구	
장녀서 金尙珪	45부 9속 12.5두락지	37부 7속 5두락지	8구	
차녀서 鄭復亨	45부 8속 7.5두락지	17부 2.5두락지	3구	無後故只出祀位
말녀서 申命元	17두락지	10두락지	8구	
얼녀서 鄭再興	44부 2속 13.5두락지	43부 1속 8두락지	2구	
차얼녀서 金乃文	27부 3속	20부 4속 4.5두락지	1구	
계	1,106부 4속 131.5두락지	306부 7속 108.5두락지	53구	

## 2. 鳳州公派의 경제 기반

봉주공파의 전래 호적류는 24점으로 15세 弘望에서부터 24세 相基에 이르기까지 9대에 걸쳐 이어진 대부분의 준호구이다. 준호구 기재된 이가계의 전래 노비를 보면 제일 많은 시기가 도망노비를 포함하여 125구 정도이고 상기대에 가서는 겨우 10구 정도 유지하는 추세였다. 이러한 양상은 또한 조선후기의 사회변화와 더불어 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결과였다.

홍망은 울산부사, 강원도 도사, 승문원 판교 등을 역임하였는데, 그의 나이 67세가 되던 1666년의 준호구에 의하면 기재된 노비수가 45구였다. 이는 도망노비와 加現奴婢를 포함한 숫자이다. 1675년에 그의 손자 叔範이 홍망에게서 전래 받게 되었고, 뒤에 많이 늘게 되어 1699년 숙범의 준호구에 의하면 총 107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것이 도망노비의 추심이나 매득에 의한 결과인지는 알 수 없다. 이때 노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분포를 보면 下川, 泥兮, 召文, 善山, 羽谷, 義興, 安東, 星州, 金山, 漆谷, 安平, 江陵 등으로 의성을 비롯한 경북일대이다.

대체로 이러한 수준에서 叔範→賁龜→鼎五→冕穆에게까지 이어지는 것 같다. 특히 정오대에는 최대 125구가 준호구상에 기재되어 있는데, 그 분포 지역을 보면 앞의 숙범대에서 보여 준 경북 일대를 포함하여 仁同, 尙州, 靑松, 盈德, 延日, 眞寶 등의 지역들이 새롭게 보이고 있으며, 居昌, 金海, 梁山 등 경남 지역의 일부분과 경기 水原도 보이고 있다. 그 만큼 노비거주의 지역 분포가 확대되었다고는 보이나 이들 대부분이 도망노비였다. 따라서 어느 정도 도망노비의 거주지 파악은 되고 있었지만, 추쇄는 어려웠던 현실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한 것이 冕穆을 이어 相基대에 오면 결국 도망노비의 기재조차 준호구에서 빠져버리게 되었다.

이러한 호구자료 외에 이들의 경제 기반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로서 完議를 들 수 있다. 봉주공과의 완의는 ‘齋舍完議<sup>39)</sup>와 ‘龜尾舊泐新粧都目完議<sup>40)</sup>가 있다.

완의는 종중이나 가문 또는 契 등에서 제사나 墓位·稷事 등에 대하여 논의한 사항을 기록하여 그것을 서로 지키도록 약속하는 문서이다.

아주신씨 鳳州公派의 이 완의는 申叔範·叔籟·叔筵·叔簾의 4형제

39) 앞의 책, 『고문서집성』 77, 449-466쪽 참조.

40) 앞의 책, 『고문서집성』 77, 467-486쪽 참조.

에 대한 제사를 후손들이 잘 지켜 나가자고 약속하면서 기록한 것이다. 서문에서 밝혀져 있듯 奉祀孫인 賁龜가 종형제들과 더불어 先考兄弟의 봉사를 위하여 만들었다고 하였다. 작성 시기는 1717년(숙종 43) 10월 그믐날이다. 그 다음에 ‘鶴原’이라 하고 봉사 대상자인 숙범 등 4형제를 기록하였다. 영원이란 『詩經』에 나오는 말로서 형제가 급한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여 서로 돕는다는 뜻으로 형제를 향연하는 詩에 쓰였다.<sup>41)</sup>

이러 실질적인 제사를 위한 약속을 절목으로 기록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忌祭와 墓祭를 네 집이 돌아가며 행하며, 祭畚 소출이 많게는 40石에 이르니 뒤에 그 輪次를 따라서 제수로 쓰고 1위에 2석에 한하여 출급하는 일, 油·淸·麪·米·果物 준비, 정월 8일의 제사는 考妣의 제사와 겹치므로 기본 2석에다 1석을 더하는 일, 제사에 맞춰 출급하지 않으면 궁한 집은 미리 끝어다 쓰는 근심이 있으므로 有司가 헤아려 지급할 일, 유사는 매년 改遞하며 네집이 돌아가며 맡을 일, 기본 2석을 출급하고 남은 곡식은 모아두었다가 정 쓸 일이 없으면 논을 사서 뒷날을 준비할 일, 혹은 남은 곡식은 곡식으로 술이나 제기를 사다가 네 집이 돌려가며 내어다가 쓰게 하고, 喪事시에는 형제간의 우의가 있어야 한 즉, 兩喪에 한하여 5석을 출급하고, 자손의 상사에는 허급하지 않을 일, 그리고 유사가 부지런하지 않을 때는 일가가 회의하여 그 경중에 따라 벌한다는 내용들이다.

그 뒤 1758년(영조 34) 12월에 聖龜가 追定約條를 더하여 宗契 창설 당시의 절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충하였다. 따라서 처음의 9조목이던 것이 20조목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것은 후손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선현 봉사에 헤이해지는 문중원들의 기강과 유대를 다진다는 의미가 깊었다. 추정식에서 유사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여 잘못이 있을 때는 중벌로 다스린다는 조목이나, 자손이 身病이나 産事 외에 이유없이 선대 제사에

41) 『詩經』小雅, 常棣, “鶴鵒在原, 兄弟急難”에서 나온 말로 형제를 향연하는 시이다. 주나라의 管叔·蔡叔의 失道を 가없이 여기어 周公이 지었다고 한다.



불참하면 答罰으로써 다스린다는 조목 등에서 그러한 면모를 더욱 잘 나타내고 있다. 나아가 帽帶나 남녀 예복은 종가에 두되 친족 계원이 아니면 비록 외손 집안이라도 일체 빌려주지 말도록 하여 친·외족 간의 사회·경제적 관계에 대한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18세기 이후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른 문중조직의 강화현상에 의한 것인 동시에 일향에서의 촌락지배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사족들의 자구책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였다. 각 문중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동계나 동약 등이 바로 이러한 과정에 생성되는데, 아주 신씨가의 완의 또한 그러한 것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龜尾舊泐新粧都目完議’는 귀미 입향조인 申之梯가 인근 7-8개 마을의 蒙利畝에 물을 댈 수 있도록 할 뜻으로 축조한 귀미구보의 관리를 위한 것이었다. 이 완의에 따르면 보의 관리는 아주신씨 문중에서 주관하고 매년 돌아가면서 都監하되 他姓은 허락하지 않도록 하였다. 애초에는 立役이나 水價가 전혀 없었으나 己酉年 이후 신씨 종가에서 수세하게 되어 1두락 당 5량씩을 받게 하였다. 이에 따라 비록 신씨 후손들이라 하더라도 마땅히 여러 경작자들과 마찬가지로 입역과 수세를 내도록 하였다.<sup>42)</sup> 이는 바로 촌락지배와 문중조직 강화를 염두에 둔 조치이기도 하였

42) 이 완의는 전체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장에 완의하는 목적을 기록하였고, 이어 上庫·中庫·下庫로 구분하여 보 중의 작자와 경작 면적을 나열하였다. 머릿단에 畝主를 쓰고 다음 단에 夜味 몇 斗落지로 경작 면적을, 마지막 단에는 경작자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이 경작자가 바뀐 부분은 침지를 하여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 보 중의 상·중·하 전체 경작 면적은 총 427斗 4刀落지였다. 조약 내용은 泐主인 신씨들이 각 마을의 여러 경작자들과 마찬가지로 입역수세해야 하며, 도감은 타성에서 뽑고, 松浸防川이 1년 중의 제일 큰 역인데 여기에 빠지는 사람은 松價 1錢과 軍丁條 1錢을 내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 안의 斗數 중 태반이 監考輩들이 사사로이 낭비하였는데 이를 바로 잡고, 상고는 5두락지 당 1명, 중고는 10두락지 당 1명, 하고는 15두락지 당 1명씩을 입역하도록 하였다. 입역할 때 두수에 차지 않는 1명에게는 價物을 준비하여 내도록 하되 白酒나 代錢 4錢을 납하도록 하였다. 또 泐 중에 養山禁松하여 防川에 쓰고자 하는데 중간에

다.

특히 泆와 같은 水澤에 대한 관심은 16세기 이후 농업기술의 발달에 따른 농지개간과 水田의 확대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재산과 이권으로서 큰 의미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소유권 내지 사용권 분쟁이 야기 되는데,<sup>43)</sup> “중간에 泆法이 해이하어져 간혹 隣班이 이를 어기고 빼앗는 수가 있다”<sup>44)</sup>는 아주신씨의 ‘귀미 구보 완의’ 내용은 그러한 사정을 잘 대변해 주는 대목이면서, 또한 재지사족의 향촌 지배 기반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짐작케 하는 것이라 하겠다.

아무튼 이러한 모습은 향촌 재지사족들이 촌락지배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의성의 아주신씨가 또한 이 같은 과정을 통하여 재지적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 맺음말

이상에서 義城 鵝州申氏家의 가계이력과 향촌 재지 기반에 대하여 이들 가문의 고문서 검토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의성의 아주신씨는 거제의 아주를 본관으로 하는 權知戶長 英美의 후손들로서 4세 允濡가 의성

---

泆法이 해이하어져 간혹 隣班이 이를 어기고 빼앗는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일이 있으면 관에 고하여 嚴處하는 일, 상하 作者 중에 이러한 조약을 어기는 자는 自奮이면 관에 고하고, 半分作者는 답주에게 징계하도록 하여 해당 기간 訖役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여러 조약 끝에 관으로부터 署押을 받아 공증하였다(앞의 책, 『고문서집성』 77, 467-486쪽 참조).

43) 앞의 논문, 『朝鮮後期 慶州地域 在地士族의 鄉村支配』, 110쪽 참조.

44) 앞의 주 42) 참조.

입향조가 되면서 지금의 의성읍과 봉양면 일대에 집성촌을 이루며 邑派라 불리는 內府令公派와 龜派라 불리는 鳳州公派로 세거하게 되었다.

읍과는 16세기 초 元祿으로부터 번창하기 시작하였다. 원록은 周世鵬과 退溪, 南冥에게 나아가 從遊하면서 학문적 기반을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진양성을 위해 長川書院을 설립하는 등 학문진흥과 향약실천에 힘썼다. 이어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虎溪派로 분류되는 適道·達道·悅道 등의 삼형제 이후로 寒岡 鄭述와 旅軒 張顯光의 문하를 잇는 학통을 토대로 중앙의 관직을 멀리하고 오직 향촌에서 학문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 가계는 학문적으로 영남의 巨儒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음으로써 향촌사회의 학문진흥과 사회구난 등 오직 성리학적 질서에 따른 전통유지에 힘쓰고자 하였다. 따라서 의성을 중심으로 명망있는 사족가문으로서의 사회적 기반을 지닐 수 있었다.

봉주공과는 祐의 차자 光貴를 중시조로 하는 가계이다. 봉주공과는 내부령공파인 읍파에 대하여 귀파라 불리는데, 이는 이 가계가 의성 봉양면의 귀미리를 중심으로 대대로 세거하여 왔기 때문이다. 귀미의 입향조 之悌는 일찍이 惟一齋 金彦機와 鶴峯 金誠一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1589년 증광문과에 갑과로 급제한 뒤 정언과 예조좌랑, 지평, 세자시강원 문학, 성균관 직강을 역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중앙의 여러 동향 관직자들과 교류하기도 하였다. 1613년에는 창원부사로 나가 明火賊 鄭大立 등을 토포하고 민심을 안정시킨 공로로 통정대부에 제수되었다. 그의 아들 弘望은 1639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중앙관직과 전주판관, 풍기군수, 울산부사 등 지방 수령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의 호구단자·준호구 등에 나타나는 노비들이 의성을 중심으로 하는 인근 지역과 멀리는 울산, 창원 등지에 이르기까지 분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계의 학문적 연원 또한 김성일·유성룡·장현광 등에게 及門하여 일향을 중심으로 선현 배향과 지방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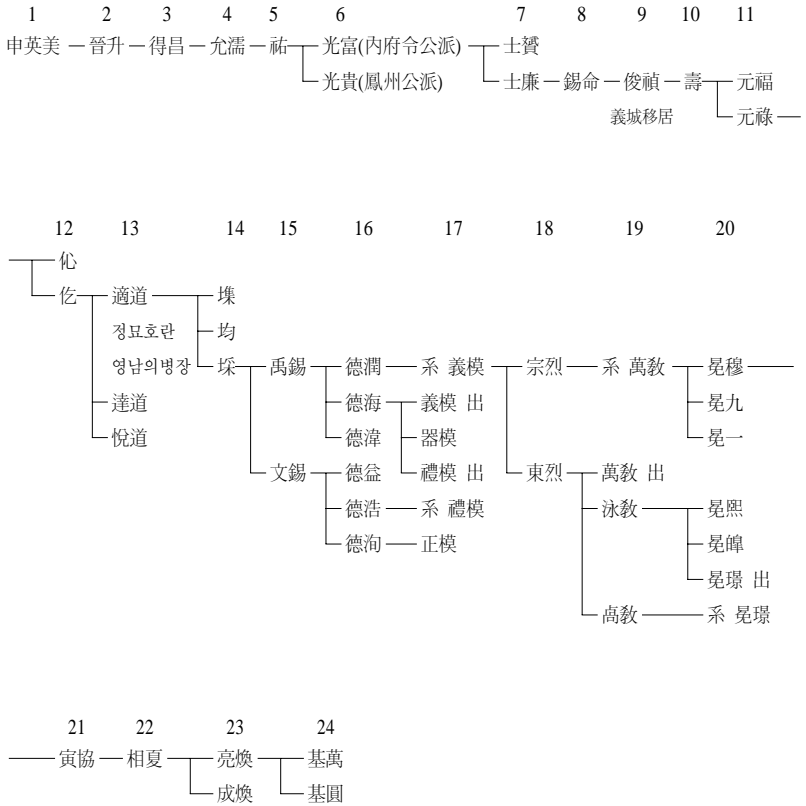
통혼에 있어서는 두 가계 모두 의성과 안동권을 중심으로 한 인근 고을의 사족들과 인척을 많이 맺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의성김씨의 학봉 집안이나 안동김씨, 안동권씨, 영양남씨, 함안조씨, 함양박씨, 영천이씨, 인동장씨, 풍산류씨, 풍양조씨, 한양조씨, 광산김씨 등 우수 가문과의 끈임 없는 혼인관계를 통하여 그들의 사회·신분적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학문적 바탕에 더하여 경제적으로도 부족하지 않는 규모를 지니고 있었다. 이들 가계의 경제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고문서 중의 호구자료나 분재기 또는 완의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 특히 田畝案과 完議 등에서 보여 지는 경제기반, 그 중에서도 적도가 그의 4남 5녀에게 분재하는 許與文記 등에서 볼 때 이 가계의 경제규모뿐만 아니라 일향에서 차지하는 재지적 기반이 상당하였음을 능히 가늠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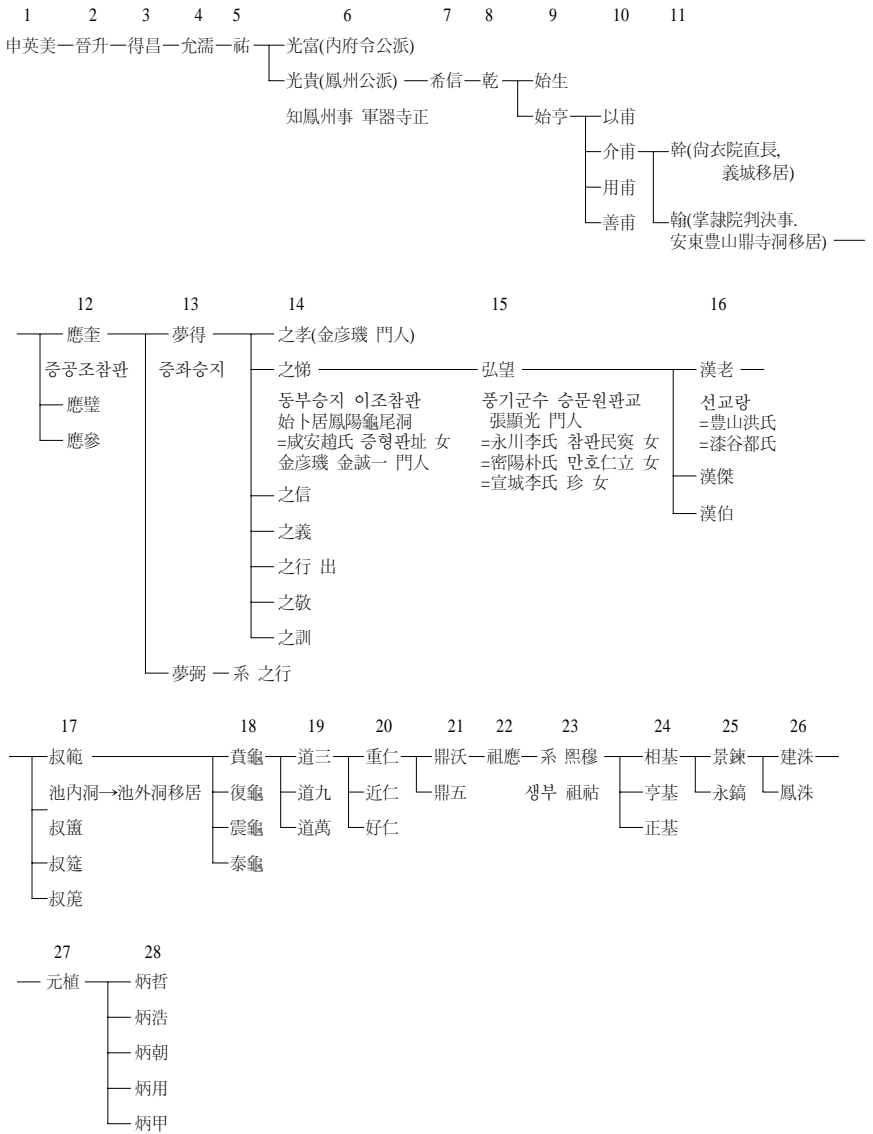
더구나 18세기 이후 문중조직의 강화와 함께 일향에서의 촌락지배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재지사족들의 노력은 洑와 같은 水澤에 대한 관심 고조와 함께 이에 대한 소유권 내지 사용권 분쟁을 야기하기도 하는데, 아주신씨가의 ‘귀미 구보 완의’ 내용은 바로 그러한 사정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면서, 또한 의성 아주신씨가의 향촌 재지적 기반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기도 하였다.

조선후기 義城 鵝州申氏家の 가계 이력과 향촌 재지 기반

【부록 1】 鵝州申氏(內府令公派) 系譜圖



【부록 2】 鵝州申氏(鳳州公派) 系譜圖



## 참고문헌

### 1. 자료

- 『光海君日記』 『孝宗實錄』 『經國大典』 『大典會通』 『詩經』  
申元祿, 『悔堂文集』 『鵝州申氏世獻』  
『慶尙北道史』(慶尙北道, 1983).  
『列邑院宇事蹟』(民昌文化社, 1994).  
『義城郡誌』(의성군, 1998).  
장필기, 『鄉兵日記·梅園日記』·『果軒日記』해제(『한국사료총서』 제43  
상·하, 국사편찬위원회, 2000).  
한국학중앙연구원, 『古文書集成 77-義城 鵝州申氏 梧峯家門·虎溪家門  
篇-』(2005).

### 2. 논저

- 李樹健,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一潮閣, 1995).  
文叔子,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경인문화사, 2004).  
李樹健, 『光山金氏禮安派의 世系와 그 社會·經濟的 基盤-金緣家門의 古  
文書 分析-』(『歷史教育論集』 1, 경북대 사범대, 1980).  
李樹健·李樹煥·鄭震英·金容晚, 『朝鮮後期 慶州地域 在地土族의 鄉村  
支配』(『民族文化論叢』 15,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94).  
鄭震英, 『16·17세기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와 그 성격』(『民族文化論叢』  
10,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89).  
崔虎, 『朝鮮時代 嶺南土族의 鄉村支配 연구-16·17世紀를 중심으로-』(중  
앙대박사학위논문, 1992).  
禹仁洙, 『紫巖 李民寯의 시대와 그의 현실대응』(동방한문학회 발표문  
집(2007. 11. 17일자 발표)).

## Abstract

Uiseong Aju Sinssi's Family history and the base of  
being in rural society of the late Joseon dynasty

Jang, Pil-Ki

This research look into the history and a social economic base of Uiseong (義城) Aju-Sinssi's Family(鵝州申氏家) using their manuscripts. Uiseong Aju Sinssi's Family divide two family groups that were called Naeburyounggongpa (內府令公派) and Bongjugongpa(鳳州公派).

Naeburyounggongpa group had prospected during 16 century by Won Rok-Sin(申元祿). He was taught by Sae Bung-Joo(周世鵬), Whang-Lee(李滉) and Sik-Jo(曹植). Through the learning he founded Jangchen Seowon(藏川書院) and tried to do the pursue of teaching and Hyangyak(鄉約) that was a rule of country controlling its constituent member. From 16 century to 17 century Uiseong Aju Sinssi's Family concentrate on learning after Hogaepa's(虎溪派) three brothers as Jeok Do(適道), Dal Do(達道) and Yeol Do(悅道), keeping on academic tradition of Hyun Gwang-Jang(張顯光). Specially this family was affected by the famous scholars of Youngnam(嶺南) area. Consequently they tried to make only order of the Confucianism society and have authority as the nobility in Uiseong.

Bongjugongpa have leaved in Uiseong Bongyang-meon(鳳陽面) Gwimi-ri (龜尾里). The first man entered the Gwimi-ri was Ji Jae-Sin(申之梯). He learned into Aeon Gi-Kim(金彥機) and Seong Il-Kim(金誠一) from early. In



1589, he passed an examination for the first class(gap gwa;甲科) of jeng-gwang-mun-gwa(增廣文科) and taking many center government positions. In this process, he associated with public service personnel come from Youngnam area. When keeping Changwon, he seized Myung Hwa Jeok(明火賊), Dae Ib-Jung(鄭大立) and so on and it was stabilized a public sentiment, received a court rank; Tongjeongdaebu(通政大夫). His son was successful the third class(byeong gwa;丙科) in examination that called byeol-si-mun-gwa(別試文科), took a local governor in Ulsan(蔚山) and Punggi(豊基).

As a result, their servants ranged from Uiseong in the center to Ulsan and Chang won places it reaches. This family line was having education origin, from Seong Il-Kim(金誠一), Seong Ryong-Yu(柳成龍) and Hyun Gwang-Jang(張顯光). They were located in taking local education and ancestor worship on one region.

The two family lines were enter into a connection with a relative by marriage to the neighborhood on Uiseong(義城) and Andong(安東). They strengthened their social position through continual the marriage Uiseong Kimssi, Andong Kimssi, Andong Gweonssi, Youngyang Namssi, Haman Jossi, Hanyang Bakssi, Youngcheon Leessi, Indong Jangssi, Pungsan Ryussi, Pungyang Jossi, Hanyang Jossi, Kwangsan Kimssi and so on.

Also two family has a bulk of budget. The data are confined to know their family line budget. But we make a conjecture as a census family register, manuscript of distributing their ancestor's estate and certificate of the government's office. They have many servants almost 60-100 people and a bulk of economy base seen to the record of estate and certificate. Especially it is mentioned to seen a record of distributing family's budget.

Therefore this family line has social and economical power into a local community.

Key Words : Uiseong(義城) Aju-Sinssi's Family(鵝州申氏家),  
Naeburyounggongpa(內府令公派), Bongjugongpa(鳳州公派),  
manuscript, local education, Hyun Gwang-Jang(張顯光),  
social position, social and economical power